

# ‘脫정치’ 강조... ‘국민성공시대’ 표방

## ■ 한나라 이명박 대선 선대위 공식 출범

###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등 캐치프레이즈

한나라당은 제17대 대선 D-70일인 10일 이명박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치르고 공식적인 대선 체제를 발족시켰다.

‘국민성공시대 출정식’으로 명명된 선대위 발대식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 후보와 공동선대위원장, 강재섭 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당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정권뿐 아니라 자신감과 희망마저 잃었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뛰어넘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길 시간이 없다.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을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무능 정권, 실재를 반영하지 않는 무책임 정권, 부끄러워할 줄조차 모르는 무지 정권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이제 ‘3무(無)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적같이 성공한 나라가 침체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 어둠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가난한 시골 아이가 최고경영자가 되는 성취의 나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실용을 중시하고 실천에 앞장서며 이념의 벽을 뛰어 넘어 합리와 효율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 앞서 외부에서 영입한 6명의 공동 선대위원장과 자영자가 되는 성취의 나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가 아닌 지방, 특히 공단 인근에서 대선 출정식을 한 것은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탈(脫) 여의도’ 의지를 강조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공개했다. 광고 전문가에 의뢰해 확정한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성공시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실용정부’로 이 후보의 비전과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 ■ 한나라 광주·전남 선대위 진용

### 전직 고위공무원·교수 등 대거 영입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0일 이명박 대선후보의 중앙 선대위와 더불어 지역 최전선에서 활동할 광주시선대위와 전남도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히 전남도선대위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이 대거 영입돼 눈길을 끈다.

광주선대위의 경우 이란의 전 환경부 차관과 한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총괄본부장에는 안재홍 시장위원장이 임명된 데 이어 이란의 당 국책자문위원장과 박영구 전 시장위원장 등 4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은 양방송 전 동구위원장, 박남현 시장 부위원장, 이보희 전 여성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영입 인사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기용된 배상현 조선대 교수, 특보단장직을 맡게 된 유태환 전 KBC 기자 등이 눈에 띈다. 전남도위원을 지낸 문상욱 당 부대변인은 문화예술본부장에 임명됐다. 전남선대위는 전남지사를 지낸 전석홍·이규범 위원장과 박재순 총괄본부장에 이어 고문에 이용식 전 광주지검장, 박형오 전 국회의원, 정동인 전 전남도교육감 등을 위촉했다.

7명의 부위원장 가운데는 이재현 전 무안군수와 박길래 전 농촌공사 전남본부장 등이 외부 영입케 이사로 눈길을 끈다. 김상아 성화대 교수는 여성본부장에 기용됐다. 대변인은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

한 황두남 신안군의원과 김종혁 보성군의원, 언론인 출신인 김연옥 대변인 등 삼두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참여본부의 경우 본부장은 선종훈 전 함평, 화순군수와 김규룡 도당 수석부위원장이, 지역개발위 위원장은 이정록 전남대 교수가 맡게 됐다. 또 미래위는 김일중 광주여대 교수, 교육위는 임영은 전 순천교육장, 농어촌위 정광훈 전 광주시 경제총서국장, 사회복지위는 이재우 전 전남도의원, 도시교통위는 임상호 전 순천시 건설국장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시·도당은 11일 오후 광주시 중흥동 당사에서 합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한나라 이명박 후보가 10일 오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성공캠프’ 출범식에서 선대위 위원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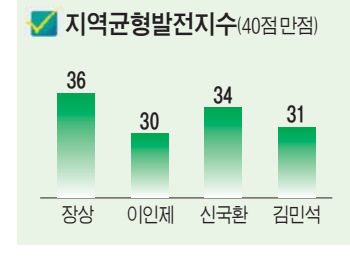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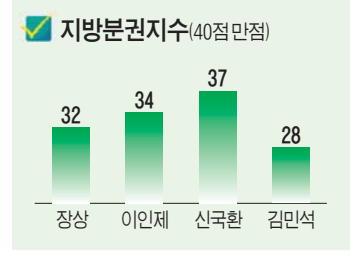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0일 오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성공캠프’ 출범식에서 선대위 위원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민주당 대선후보 지방분권정책 분석

# 분권·균형발전 대체로 소극적

## 한국지방신문협·지방분권운동 공동 신당·한나라당 보다 지수 낮아

대선후보 선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분권분야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보다 오히려 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민석 후보는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라고 답한데 이어, 국가균형원 설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소극적이었다.

지역균형발전분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신 후보는 ‘현재 계획대로 적극 이전’이라고 답변 반면, 장·김 후보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고, 이 후보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신 후보는 ‘규제완화 불가피’, 이·김 후보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라고 답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수도권 규제를 대변했다. 장 후보는 이에 비해 ‘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충실’이라고 답해 가장 지역균형발전 입장을 견지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공동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시장중심적 보수성향을 지닌 터에 다수의 후보들이 수도권 지향의 인물들이어서 특히 균형발전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과 광주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이 강원일보 회장)는 지난 5일 민주당 대선후보 4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질서는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지방분권형 헌법개정·자주재원 확대·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 총 33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분야별 속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항 10개씩을 선정, 문항별로 4~1점으로 서열척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신국환 후보가 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인제 34점,

장상 32점을 기록했고, 김민석 후보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균형발전지수에서는 장상 후보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국환 후보 34점, 김민석 31점, 이인제 30점으로 집계됐다. 네 후보는 지방분권분야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대폭 지방 이관 ▲자주재원 확대 필요 방안에 대해서만 모두 적극 찬성지를 보였을 뿐,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추진 기구인 국가균형원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이명박 교육공약’ 공방 가열

## 신당·민주당 “교육·사회 양극화 심화” 반발

대학입시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10일 하루 종일 들쭉날쭉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 후보의 공약이 분고사 및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사교육을 강화하고 대입 위주 교육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태당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무너뜨리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입 분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지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신당 이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지립형 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이것 자체로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

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된다”며 “이 후보 자식들이 미국 유수대학에 기어입학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기회를 봐서 기어입학제도 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교육마저 기업식으로 서열화하고 경쟁시키면, 마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3불정책 폐기라기보다 3불정책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다른 문제이지만 나머지 2개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제 광주에서도 정통 일식맛과 반가를 드려실 수 있습니다.

## 무등산 자락의 차별화된 高品格 정통일본식전문점 유전

점심특선

- 비빔밥, 김치, 밥, 김치, 된장,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떡갈비, 떡볶이, 떡갈비
- 12,000원
- 18,000원
- 19,000원
- 20,000원
- 21,000원
- 22,000원
- 23,000원
- 24,000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